

국어 교과서의 통합 단위 구성 방식 연구

—중학교 1학년 김정 교과서 23종의 읽기 영역을 중심으로—

류보라*

<차 례>

- I. 서론
- II. 국어과의 통합 단위 구성 방식
- III. 국어 교과서 읽기 단원의 영역 통합 방식
- IV. 결론

I. 서론

2007년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중학교의 국어 교과서가 검정 체제로 개발되어 검정과정을 거친 7학년 23종의 교과서가 교육 현장에서 사용되고 있다. 국어 교과서 제도가 국정 도서제에서 검인정 체제로 바뀐 후 첫 교과서 발행이라는 점에서 2007년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서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높았다(송현정, 2005). 2007년 개정 교육과정은 학생 중심의 교육과정이라는 중심 취지 아래 국어과 교육 과정은 학습자의 언어 생활 실체를 강조하고 있고 이러한 움직임은 언어의 총체성에 근거하여 영역 간, 영역 내의 통합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이어지고 있다(김정우, 2009).

영역 통합의 필요성은 인간의 실제 언어 생활에서 듣기, 말하기, 읽기,

*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국어교육학과 박사과정 수료, lyupola@hanmail.net

쓰기가 통합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측면에서 교육의 활용도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제기되어 왔다. 통합을 위한 근거가 교육과정에 전제되어 있고, 통합적인 지도가 실생활의 언어활동과 유사하다는 점을 주요 근거로 그간 많은 연구들이 통합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에서 논의하였다.

통합에 대한 이론적 검토는 읽기와 쓰기의 통합을 중심으로 다각적으로 접근되어 왔는데(고춘화, 2008 ; 김정자, 2008 ; 서혁, 2006 ; 양정호, 2008), 기존 연구는 2007년 개정 교육과정의 성취기준 분석을 통해 통합을 제안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제안이 실제 교과서로 실현된 방식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한편, 교육과정의 교과서 반영 방식이라는 측면에서는 통합이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도 있다. 언어 기능의 각 영역을 통합하기 위해서는 교육과정의 내용기준을 통합하여 한 단원으로 구성하는 방식을 택하게 되는데, 이러한 반영방식은 교육과정의 기준을 교과서에 반영하는 비중이 고르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정혜승(2002)에서는 한 단원에 여러 개의 교육과정 내용이 제시되면 언어 기능을 통합적으로 지도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으나, 한 단원에서 학습해야 할 분량이 증가하고, 개개의 교육과정 내용이 충실하게 지도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고 하였다.

교과서의 단위 구성 방식에서 영역 통합에는 언어 생활의 실재를 반영하여 학습자의 활용도를 높이는가와 교육과정에서 구현하고자 하는 교육 내용을 교과서가 충실히 반영하고 있는가의 딜레마가 존재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23종의 7학년 검정 교과서를 대상으로 읽기 영역의 통합 양상에 대한 분석을 통해 이 문제에 대해 접근하고자 한다. 통합의 양상을 살펴보기 위해 23종 국어 교과서의 읽기 영역을 중심으로 영역 간 통합 단위에서 통합 영역을 알아보고 영역 통합 단위들의 학습 목표와 소단원 구성을 중심으로 통합 방식을 분석하였다.

II. 국어과의 통합 단위 구성 방식

1. 읽기 영역 통합에 대한 기존 논의

국어 교육에서 영역 통합에 대한 근거는 실제 언어 생활에 근접한 활동이 수업 시간에 이루어짐으로써 수업이 학생들의 실제적인 언어 능력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게 된다는 논리에서 시작된다. 유성호(2005)는 7차 국어과 교과서에 대해 검토를 한 뒤 차기 교과서 개발의 시사점으로 총체적 언어교육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이의 근거로 언어상황은 언어 기능의 각 영역이 통합적으로 구현되는 장이며, 바로 언어의 이러한 측면을 고려하며, 교과 내용과 활동이 통합적으로 제시되었을 때, 보다 나은 국어교육이 실현된다고 말하였다.

읽기의 통합은 쓰기 영역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주로 접근되었다. 이는 언어의 방식을 기준으로 읽기와 쓰기, 듣기와 말하기의 관련이 밀접하기 때문이다. 서혁(2006)은 읽기와 쓰기의 통합에 대해 쓰기 영역을 중심으로 접근하면서 쓰기과 읽기, 쓰기과 말하기 등의 영역 통합적 접근이 강조되는 것이 바람직하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러한 통합의 장점에 대해 실제 국어사용이 통합적이고, 학습 부담을 줄이면서 실제 표현·이해 활동을 강화해 나갈 수 있고, 교수·학습 방법의 다양화에도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김정자(2008)에서는 영역 통합 지도에 대해 읽기와 쓰기 두 기능 간의 관련성 논의에 바탕을 두고 이루어져야 함을 지적하면서 읽기와 쓰기가 이해와 표현 과정이라는 상반된 과정이 아니라, 의미구성과정이라는 점에서 상호보완적인 행위로 인식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인식을 통해 읽기와 쓰기 활동이 각기 쓰기와 읽기가 내재된 활동이며, 이 지점에서 통합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보았다. 고준화(2008)에서도 읽기, 쓰기 영역의 통합을 사고하는 방법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하였으며

교육과정이 효과적으로 실행되기 위해서는 교육과정 내에서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과정에서 분리하여 제시한 영역을 교과서 집필, 교실에서의 활동 계획 단계에서 통합함에 있어서는 교육과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교육 내용을 충실하게 반영하여 구성할 수 있는가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 문제에 대해 양정호(2008)은 읽기 교육과 쓰기 교육의 통합은 독립성을 전제로 한 통합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는 통합 교육이라는 전체적인 틀 속에서 각각 독립적인 내용으로 구성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통합을 이루기 위해 ‘통합을 통해 교육적 효과를 최대화하여야 한다’와 ‘통합을 통한 읽기와 쓰기의 독립성 훼손을 최소화하여야 한다’는 통합의 원칙을 제시하였다. 이 두 원칙은 영역을 통합하여 단원 구성을 할 때 교과서가 교육과정을 충실히 반영하기 위한 중요한 원칙으로 적용될 필요가 있다.

영역 통합의 효율성과 필요성에 대해서는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영역 통합 단원 구성에서 쟁점이 되는 부분은 영역 통합 단원이 독립적인 영역 구성 단원보다 상승 효과가 있는가, 교육과정을 교과서로 구현하는 과정에서 교육과정의 내용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가(양정호, 2008 ; 정혜승, 2002)라는 점이다.

2. 교육과정에서 제시한 통합 방식

교육과정은 교육내용의 체계화를 위해 내용을 분절적으로 제시해야하므로 교육현장에서는 실생활의 경험과 가깝게 제시하기 위하여 영역을 통합적으로 제시하여야 함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제안이 이루어져왔다. 그러나 통합 교육을 수행하기 위한 계획의 단계에 대해서는 합일점이 만들어지지 않는다고 하였다. 통합의 계획을 교육과정 구성 단계부터 고려해야 하는가, 교과서나 수업의 실천 차원에서 고려해야 하는가에 따라 통합의 주체가 교육과정 개발자 또는 교과서 개발자, 수업을 구상하는 교사로 이동하게 된다. 통합의 구상이 교육과정 개발 단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통합에 대

한 대부분의 연구에서 제안되고 있다(김봉순, 2004 ; 고춘화, 2008 ; 김정자, 2008).

2007 개정 교육과정¹⁾은 통합에 대한 원칙을 제시하였고, 교육내용의 제시에서도 통합을 고려한 내용 선정이 일부 이루어졌으나 전반적인 성취 기준 제시에서 적극적으로 통합을 고려하지는 않았다. 교육과정에서는 통합에 대한 원칙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4. 교수·학습 방법

가. 교수·학습 계획

- 1) 교수·학습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학습자가 의미 있는 국어 학습 경험을 하여 창조적인 국어 능력이 향상되도록 다음 상황에 유의한다.
- 가) 학습 목표는 교육과정의 '3. 내용'에 제시되어 있는 학년별, 영역별 '담화(또는 글, 언어 자료, 작품)의 수준과 범위', '성취 기준'을 고려하여 설정하되,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문법, 문학 영역이 유기적으로 연관되도록 한다.²⁾
- 나) 학습 내용은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문법, 문학의 각 영역별 특성을 살려 학습 목표 달성에 적합하게 선정하되, 특히 영역별 내용 간의 관련성, 학년별 내용 간의 연계성을 고려한다.
- 3) 국어 활동의 총체성을 고려하여 영역 간, 영역 내의 학습 요소를 통합하여 지도하기 위한 교수·학습 방안을 계획한다.
- 가) 각 영역에서 해당 영역의 고유성이 반영되어 있는 학습 요소와 통합이 가능한 학습 요소를 구분하여 지도하되, 학습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한다.
 - (1) 국어 표현과 이해의 원리와 과정을 고려하여, 말하기와 쓰기를 통합하고, 듣기와 읽기를 통합한다.
 - (2) 국어 활동에서 사용되는 음성 언어와 문자 언어의 특성을 고려하여 듣기와 말하기, 읽기와 쓰기를 통합한다.
 - (3) 문법이나 문학과 관련된 담화 또는 글과 문학 작품을 읽거나 듣고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표현하게 함으로써 문법 및 문학 영역과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영역을 통합한다.
- 나) 동일 영역의 내용 요소 중, 학습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적합한 요소를 통합하여 지도한다.
- 다) 매체 관련 내용 요소를 지도할 때에는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문법, 문학 영역과의 통합을 고려하여 지도한다.
- 라) 여러 영역을 통합하여 지도하기 위해 자료를 개발할 때에는 교육 내용과 학습 상황에 맞게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도록 한다.
 - (1) 주제를 중심으로 내용 요소를 유기적으로 통합하여 조직한다.

1) 이후 '교육과정'은 2007 개정 교육과정을 지칭한다.

2) 밑줄은 연구자가 첨가하였음.

- (2) 다양한 상황을 중심으로 관련되는 내용 요소를 통합하여 조직한다.
- (3) 종합적인 사고가 요구되는 문제 상황을 제시하고 이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내용 요소를 통합하여 조직한다.
- (4) 다양한 담화 또는 글을 중심으로 내용 요소를 통합하여 조직한다.

나. 교수·학습 운용

- 3) 영역 간, 영역 내의 학습 요소를 통합하여 지도할 때에는 다음 상황에 유의한다.
 - 가) 둘 이상의 영역을 통합하여 지도할 때에는 학습자의 학습 활동이 특정 영역에 치우치지 않도록 한다.
 - 나) 영역 간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고려하여 통합적 교수·학습의 효율성을 높인다.
 - 다) 학습자가 한 영역에서 학습한 내용을 다른 영역에 적용하는 과정을 충분히 이해하고 수행하도록 지도한다.
 - 라) 학습 요소의 통합 취지에 알맞은 방법으로 교수·학습을 전개한다.

교육과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원칙에서는 통합의 영역은 언어의 표현과 이해에 근거하여 말하기와 쓰기, 읽기와 듣기의 통합이 가능하고, 문자 언어와 음성 언어라는 특징에 근거하여 듣기와 말하기, 읽기와 쓰기의 통합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또한 문학, 문법 영역을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각 영역과 통합하도록 하여 여섯 영역이 두루 통합하여 구성될 수 있음을 말하고 있다. 또한 통합의 필요성을 학습의 효율성에 두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담화와 글의 수준과 범위에서도 통합을 고려한 제시는 동일 학년에서 영역 간에 동일한 담화와 글을 제시하고 있는 성취기준에서 찾아볼 수 있다. 7학년의 성취기준 중 담화와 글의 범위가 일치하고 있는 성취기준은 읽기(3)과 쓰기(3)으로 이 두 성취기준은 ‘건의하는 글’이라는 동일한 글의 유형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표 1〉 7학년 국어과 교육과정 중 동일한 글의 수준과 범위

영역	글의 수준과 범위	성취기준
읽기	문제 해결 방안이나 요구 사항을 담아 건의하는 글	(3) 건의하는 글을 읽고 주장의 합리성과 수용 가능성을 평가한다.
쓰기	학교나 지역 사회에서 일어난 일을 소재로 하여 건의하는 글	(3) 문제 해결 방안이나 요구 사항을 담아 건의하는 글을 쓴다.

글의 수준과 범위가 일치하지는 않지만 각 성취기준에 대한 해설에서도 교과서 개발이나 수업 계획 단계에서 통합을 하여 운영하도록 제안하고 있다. 통합에 대한 제안은 각 성취기준별로 제시하고 있는데, 본고에서는 7학년 읽기 영역을 중심으로 통합의 양상을 분석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통합의 중심이 되는 7학년 읽기의 성취기준과 교육과정 해설에서 읽기 영역에서 통합을 제안하고 있는 성취기준 읽기(3), (4), (5)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7학년 읽기 영역 성취기준〉

- (1) 읽기의 개념, 특성, 원리, 방법을 안다.
- (2) 독자의 관점, 입장, 지식 등에 따라 글의 내용이 다르게 이해될 수 있음을 안다.
- (3) 건의하는 글을 읽고 주장의 합리성과 수용 가능성을 평가한다.
- (4) 특별한 경험을 기록한 글을 읽고 글쓴이의 경험에 비추어 자신의 삶을 성찰한다.
- (5) 영화에 등장하는 인물의 가치관이나 사고방식을 비판적으로 이해한다.

〈표 2〉 교육과정 해설에서 제시하고 있는 통합

7학년 읽기 영역 성취기준	교육과정 해설에서 제시하고 있는 통합	통합영역
읽기(3)	이 성취 기준은 7학년 쓰기 영역의 성취 기준 '(3) 문제 해결 방안이나 요구 사항을 담아 건의하는 글을 쓴다.'와 연계하여 지도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쓰기
읽기(4)	이 성취 기준은 7학년 쓰기 영역의 성취 기준 '(5) 자신의 생활 체험을 바탕으로 독자에게 감동이나 즐거움을 주는 글을 쓴다.'와 연계하여 지도할 수 있다.	쓰기
읽기(5)	이 성취 기준은 인물에 대한 이해와 관련하여, 7학년 문학 (1) '문학 작품에 드러난 인물의 심리 상태와 갈등의 해결 과정을 파악한다.'와 연계하여 지도할 수 있다.	문학

7학년 읽기의 경우 교육과정 해설에서는 쓰기 영역뿐 아니라 문학 영역과도 통합하도록 제안하고 있다. 교육과정 수준에서 통합에 대한 고려가 이루어지고 있음은 글의 수준과 범위에서 나타나는 경우와 동일한 글

이나 담화를 다루지 않더라도 통합을 제안하고 있는 경우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교과서로 교육과정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성취기준을 통합하여 단원을 구성하는 방식은 교육과정에서 구체적으로 통합을 고려한 성취기준, 교육과정의 교수·학습 방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통합의 원칙에 따라 성취기준의 통합을 한 경우가 나타나게 된다.

III. 국어 교과서 읽기 단원의 영역 통합 방식

교육과정 수준에서 제시하고 있는 통합이 교과서와 실제 수업에서 어떤 방식으로 실행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구체적인 분석을 함으로써 통합이 실제 이루어지는 방식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교과서 수준에서 읽기 영역의 통합이 이루어지는 방식을 확인하고자 한다.

7학년 교과서 23종은 검정체제로 개발되면서 교과서 체제 면에서, 수록 체제 면에서 모두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졌다. 국어와 생활국어 교과서의 연계 방식도 교과서마다 차이가 있었다. 대부분의 교과서가 국어과 생활국어 교과서를 연계하여 학습하도록 구성하였으나 영역을 별도로 구성한 교과서가 7종이었고, 이 중에는 국어와 생활국어 각 단원의 대단원명과 영역도 다르게 구성하여 전혀 연계하지 않은 경우도 2종이 있었다. 또한 연계하여 구성한 경우도 대단원명과 단원이 다루고 있는 영역, 학습목표, 소단원 명 수준에 이르기까지 연계의 정도가 다르게 나타났다³⁾. 단원 구성에서 통합의 양상을 분석하면서 국어 교과서와 생활국어 교과서가 연계되어 있지 않은 7종은 읽기 영역을 다루고 있는 교과서에서만 통합한 것으로 사례수를 확인하였다.

23종의 교과서 중 국어과 생활국어 교과서가 연계된 경우는 16종으로

3) <국어> 교과서와 <생활국어> 교과서의 연계 양상은 김정우(2009)에서 상세히 분석하였다.

같은 단위에서 동일한 영역을 다루고 대단원명을 일치시키는 방식으로 연계하였고 7종의 교과서는 국어와 생활국어 교과서가 별도의 영역을 다루고 있었다. 이들의 목록은 다음과 같다.⁴⁾

〈표 3〉 국어와 생활국어 교과서의 연계

국어와 생활국어가 연계된 경우	국어와 생활국어가 별도의 영역을 다룬 경우
금성(윤), 대교(왕), 두산(우), 디딤(김), 디딤(이), 미래(윤), 미래(이), 박영(송), 새롬(권), 웅진(이), 유웨(이), 지학(방), 지학(이), 창비(김), 천재(노), 해냄(오)	교학(김), 교학(남), 대교(박), 비유(조), 신사(이), 천재(김), 천재(박)
16종	7종

1. 읽기 단원의 영역 통합

23종의 7학년 교과서에서 읽기 영역의 대단원 구성을 분석한 결과 다른 영역과의 통합한 양상은 다음과 같았다. 총 통합 사례수가 교과서 수인 23회를 초과하게 된 것은 읽기 영역과 둘 이상의 다른 영역을 통합한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대교(왕)의 경우 읽기 (4)와 말하기(2), 쓰기(5) 성취기준을 통합하여 한 단원에 3개 영역을 통합하여 구성하고 있다.

4) 논문 기술의 편의상 23종 교과서의 기호를 출판사 이름과 대표저자 이름의 약자로 표시하기로 한다. (출판사 가나다순, 동일출판사의 경우 저자 가나다순) 교학(김), 교학(남), 금성(윤), 대교(박), 대교(왕), 두산(우), 디딤(김), 디딤(이), 미래(윤), 미래(이), 박영(송), 비유(조), 새롬(권), 웅진(이), 유웨(이), 신사(이), 지학(방), 지학(이), 창비(김), 천재(김), 천재(노), 천재(박), 해냄(오)

〈표 4〉 7학년 교과서 읽기 영역 통합 단위 사례수

7학년 읽기영역 성취기준	통합한 성취기준	통합 사례수	영역별 통합 사례수	계
읽기(1)	듣기(1) 수업을 듣고 교과 특성을 고려하여 중요한 내용을 메모한다.	4	4	24
	쓰기(1) 다양한 매체에서 내용을 선정하여 통일성 있게 설명문을 쓴다.	5	7	
	쓰기(2) 절차와 결과가 드러나게 보고서를 쓴다.	1		
	쓰기(5) 자신의 생활 체험을 바탕으로 독자에게 감동이 나 즐거움을 주는 글을 쓴다.	1	13	
	문법(2) 관용 표현의 개념과 효과를 이해한다.	1		
	문법(3) 품사의 개념, 분류 기준, 특성을 이해한다.	1		
	문법(5) 지시어가 글의 구조와 의미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11		
읽기(2)	말하기(1) 대상의 특성을 살려 주변의 인물이나 관심사를 인상 깊게 소개한다.	1	7	16
	말하기(2) 대화 상대의 공감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호소력 있게 말한다.	2		
	말하기(3) 인터넷 게시판의 내용을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인터넷 토론에 주체적으로 참여한다.	1		
	말하기(4) 말의 내용이나 말하기 방식의 차이를 고려하며 대화를 나눈다.	3		
	문법(2) 관용 표현의 개념과 효과를 이해한다.	1	9	
	문법(3) 품사의 개념, 분류 기준, 특성을 이해한다.	1		
	문법(4) 표현 의도에 따라 사동·피동 표현이 달리 사용됨을 안다.	2		
	문법(5) 지시어가 글의 구조와 의미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5		
읽기(3)	말하기(3) 인터넷 게시판의 내용을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인터넷 토론에 주체적으로 참여한다.	6	6	26
	쓰기(2) 절차와 결과가 드러나게 보고서를 쓴다.	1	19	
	쓰기(3) 문제 해결 방안이나 요구 사항을 담아 건의하는 글을 쓴다.	18	19	
	문법(2) 관용 표현의 개념과 효과를 이해한다.	1	1	

7학년 읽기영역 성취기준	통합한 성취기준	통합 사례수	영역별 통합 사례수	계
읽기(4)	말하기(2) 대화 상대의 공감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호소력 있게 말한다.	3	3	27
	쓰기(4) 여러 가지 표현 전략을 사용하여 격려하거나 위로하는 글을 쓴다.	1	20	
	쓰기(5) 자신의 생활 체험을 바탕으로 독자에게 감동이나 즐거움을 주는 글을 쓴다.	19		
	문학(2) 문학 작품의 전체적인 정서와 분위기를 파악한다.	1	3	
	문학(3) 역사적 상황이 문학 작품에 어떻게 나타나는지 이해한다.	1		
	문학(4) 시어와 일상어의 관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노랫말을 쓴다.	1		
		문법(4) 표현 의도에 따라 사동·피동 표현이 달리 사용됨을 안다.	1	
읽기(5)	듣기(2) 광고를 보거나 듣고 설득의 전략을 파악한다.	2	2	19
	말하기(2) 대화 상대의 공감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호소력 있게 말한다.	2	3	
	말하기(3) 인터넷 게시판의 내용을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인터넷 토론에 주체적으로 참여한다.	1		
	문학(1) 문학 작품에 드러난 인물의 심리 상태와 갈등의 해결과정을 파악한다.	10	12	
	문학(3) 역사적 상황이 문학 작품에 어떻게 나타나는지 이해한다.	2		
	문법(1) 다양한 매체에 나타난 언어 사용 방식의 차이점을 파악한다.	1	2	
	문법(5) 지시어가 글의 구조와 의미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1		

영역 간의 통합은 아니지만 동일한 영역인 읽기(1)과 (2)의 성취기준을 통합한 경우도 교학(김), 금성(윤), 디딤(이), 지학(이), 창비(김) 5종의 교과서에서 나타났다. 성취기준 별로 영역을 통합한 경우를 보면 읽기(3)과 쓰기(3)이 18회, 읽기(4)와 쓰기(5)가 19회, 읽기(5)와 문학(1)이 10회로 나타

나 각 읽기 성취기준별 사례수에서 통합한 경우가 많은 경우에 속했다. 이 세 성취기준은 교육과정 단계에서 통합을 제안한 경우로 이를 통해 교육과정에서 통합을 계획하는 경우 통합이 자주 이루어졌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교육과정에서 제안한 경우가 아니나 읽기(1)과 문법(5)도 11회 통합이 이루어졌다. 읽기 영역과 통합한 사례수를 영역별로 정리해보면 듣기 6회, 말하기 19회, 쓰기 46회, 문법 15회, 문법 26회로 쓰기 영역과 통합된 경우가 가장 많고 다음으로 문법과 읽기와의 통합이 많았다. 통합된 영역이 말하기와 쓰기가 높게 나타난 것을 통해 각 교과서에서 읽고 말하기, 읽고 쓰기의 활동을 통합하는 것을 교육적으로 유용한 활동으로 활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읽기와 문법의 통합이 많이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는 문법 영역의 단위 구성 측면에서 더 자세한 분석이 필요하겠다.

대단원 구성에서는 두 영역 이상의 성취 기준은 통합하여 구성하였지만 소단원을 구성하는 방식에서는 차이가 있었다. 대단원 내에서 통합의 방식을 살펴해보도록 하겠다.

2. 영역 통합 단원의 구성 방식

7학년 교과서에서 영역을 통합한 대단원의 구성은 소단원과 활동의 구성 측면에서 다음의 네 가지 방식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영역 통합 단원의 구성 방식을 해당 교과서의 단원을 예로 구체적으로 살펴해보도록 하겠다.

〈표 5〉 영역 통합 단위 구성 방식

1) 나열 방식	영역A ➡ 영역B
2) 융합 방식	영역AB ➡ 영역AB
3) 나열 후 융합 방식	영역A ➡ 영역B ➡ 영역AB
4) 융합 후 나열 방식	영역AB ➡ 영역A ➡ 영역B

1) 나열 방식

나열 방식은 대단원에서 통합한 영역들을 소단원 수준에서 별도 단원으로 구성하는 방식이다. 읽기와 쓰기를 통합한 대단원에서 소단원(1)은 읽기 또는 쓰기(영역A), 소단원(2)는 쓰기 또는 읽기(영역B)로 구분하여 구성하여 통합된 각 영역들은 나열식으로 구성된다. 지학(이)에서 나열 방식으로 통합한 단원을 살펴보겠다.

교과서	단원명	영역	학습목표
2학기 국어	1단원 이렇게 읽는다	읽기 문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는 읽기의 개념, 특성, 원리, 방법을 안다. • 나는 독자의 관점, 입장, 지식 등에 따라 글의 내용이 다르게 이해될 수 있음을 안다. • 나는 지시어가 글의 구조와 의미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수 있다.

2학기 국어 교과서 11쪽에서는 단원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고 있다. ‘소단원 (1)에서는 읽기가 어떤 활동이며 어떤 방법으로 읽어야 하는지 살펴볼 것입니다. 소단원 (2)에서는 같은 글을 읽더라도 사람마다 다르게 이해할 수 있음을 생각해 보고, 소단원 (3)에서는 지시어의 기능을 살펴봄으로써 글을 꼼꼼하게 이해하는 능력을 키우게 될 것입니다.’ 대단원에서는 읽기와 문법을 통합하였지만, 소단원(1), (2)는 읽기를, 소단원(3)은 문법을 다루어 소단원에서는 별개의 영역을 담아 나열식으로 구성하였다.

나열 방식은 교육과정의 내용을 교과서에 충실히 반영할 수 있으나 각 소단원이 별개 단원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진정한 의미로 통합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2) 융합 방식

융합 방식은 대단원에서 통합한 영역들의 교육내용을 융합하여 소단원 수준에서 통합 영역들을 다루고 있는 방식이다. 융합 방식은 별도의

영역 A, B가 융합하여 영역AB로 소단원을 구성한다. 미래(이)에서 융합 방식으로 통합한 단원을 살펴보겠다.

교과서	단원명	영역	학습목표
1학기 국어	4단원 건의와 토론	읽기 쓰기 말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의하는 글을 읽고, 건의하는 글을 쓸 수 있다. • 토론의 특징을 알고, 인터넷 토론에 참여할 수 있다.
1학기 생활국어	5단원 이야기 속의 인물	읽기 문학	소단원(2) 영화 속의 인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 인물의 성격이 어떻게 제시되고 있는지 파악할 수 있다. • 소설과의 비교를 통해 영화 매체의 특성을 이해할 수 있다. • 영화에 나타난 인물의 가치관이나 사고 방식을 알 수 있다.

교육과정에서 성취기준의 통합이 제시된 경우 융합하여 단원을 구성할 수 있었다. 4단원은 건의하는 글이라는 텍스트가 동일하므로 한 텍스트를 대상으로 읽기를 하고 쓰기를 할 수 있었고, 5단원은 영화와 소설에서 ‘인물’이라는 공통요소를 추출하여 문학과 읽기의 교육내용을 학습하도록 구성하였다.

융합 방식으로 단원을 구성하는 경우는 두 영역의 교육내용이 활동 수준에서 통합되어 구성될 수 있다. 이 경우 한 편의 글을 대상으로 읽기의 학습목표와 쓰기의 학습목표 관련 활동을 함께 제시하게 된다. 지학(이)에서 활동 수준에서 영역 통합이 이루어진 경우를 살펴보면 지학(이)의 국어 교과서 178쪽에서는 ‘건의문 쓰기와 읽기의 절차를 양쪽의 입장에서 살펴봅시다.’라고 활동을 제시하면서 도서관 사서 선생님께 건의하는 글을 대상으로 건의하는 글을 쓴 학생의 입장에서 건의하는 글을 쓸 때 어떤 점을 고려하며 썼는지 살펴보는 활동과 건의문을 읽는 사서 선생님의 입장에서 이 건의문에서 요구하는 사항과 주장의 합리성, 수용 가능성을 판단해 보는 활동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동일한 텍스트를 대상으로 읽기와 쓰기의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통합하여 활동을 구현한

경우이다.

융합 방식은 영역의 내용이 통합되어 교육내용을 실제 언어생활과 가깝게 제시할 수 있지만 교육과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교육내용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을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3) 나열 후 융합 방식

나열 후 융합 방식은 각각의 영역을 다른 소단원을 나열식으로 구성한 후 융합 방식의 소단원을 구성하는 방식으로 나열 방식과 융합 방식의 장점을 동시에 반영할 수 있다. 두산(우)는 국어에서는 나열 방식으로 단원을 구성하고 생활국어에서는 융합 방식으로 구성하여 국어와 생활국어 교과서를 연계하여 학습할 때 나열 후 융합 방식으로 단원을 구성하고 있다.

교과서	단원명	영역	학습목표
2학기 국어	2단원 세상으로 열린 길	읽기 문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작품에 드러난 인물의 심리 상태와 갈등의 해결 과정을 파악할 수 있다. •영화에 등장하는 인물의 성격을 파악하고 가치관을 비판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작품에 나타난 역사적 상황과, 인물이 시대 상황에 대응하는 방식을 이해할 수 있다.
2학기 생활국어	2단원 세상으로 열린 길	읽기 문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등장인물의 경험과 갈등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 •작품에 나타난 다양한 사회적·역사적 맥락을 이해할 수 있다. •등장인물의 가치관이나 행위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글로 표현할 수 있다.

두산(우)는 국어 교과서에서는 소단원별로 각각의 학습목표를 다루고 있는 나열 방식으로 구성하고, 생활국어에서 융합 방식으로 구성하여 읽기와 문학 영역을 통합하였다. 생활국어 교과서를 ‘생활－맥락－통합’으로 활동의 흐름이 이루어지도록 집필하여, 2단원은 각각의 소단원을 ‘생활(1) 이야기로 풀어낸 삶, 맥락(2) 문학에 담아낸 현실, 통합(3) 삶의 실타래 풀기’로 구성하였다. 구체적인 활동으로는 경험을 담은 글인 이순호의

‘아직 끝나지 않은 말아톤’을 제시하고 이 내용을 소재로 한 영화 ‘말아톤’(정윤철 감독, 2005)과 연관한 활동을 하도록 하여 읽기와 문학 영역의 성취기준을 융합 방식으로 통합하였다.

나열 후 융합할 경우 교육과정의 학습 내용을 충분히 다룬 후 이를 바탕으로 통합 학습을 하여 실생활에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효율적이다.

4) 융합 후 나열 방식

융합 후 나열 방식은 두 영역을 융합한 영역AB로 소단원을 구성하고 영역A, 영역B를 각각 다룬 소단원을 나열 방식으로 구성하는 단위 구성 방식이다. 이 방식은 교육과정을 융합하여 통합하여 학습한 후 다시 교육과정의 각 영역별로 구분하여 학습내용을 제시하게 된다.

금성(윤)은 한 교과서 내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통합 단원을 구성하고 있었다. 읽기(3)과 쓰기(3)은 나열 방식으로, 읽기(1), (2)와 문법(5)은 융합 방식으로, 읽기(4)와 쓰기(5)는 융합 후 나열 방식으로 구성하였다. 읽기(4)와 쓰기(5)를 반영한 2학기 국어 1단원을 살펴보겠다.

교과서	단원명	학습목표	영역
2학기 국어 1단원	대단원1. 경험의 나눔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험을 기록한 글의 특성과 가치를 안다. 가치 있는 경험이 담긴 글을 읽고 자신의 삶을 돌아볼 수 있다. 자신의 생활 체험이 잘 드러나는 글을 쓸 수 있다. 	읽기 쓰기
	(1) 경험의 기록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험을 기록한 글의 특성을 알고 글을 읽을 수 있다. 자신의 생활 체험이 잘 드러나는 글을 쓰는 과정을 안다. 	읽기 쓰기
	(2)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장갑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글 속에 담긴 가치 있고 감동적인 경험을 이해할 수 있다. 글을 읽고 자신의 삶과 연관 지을 수 있다. 	읽기

교과서	단원명	학습목표	영역
2학기 국어 1단원	(3) 시금치 한 단 의 추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신의 생활 체험에서 감동이나 즐거움을 줄 수 있는 내용을 선정할 수 있다. • 개인적인 생활 체험을 한 편의 글로 표현할 수 있다. 	쓰기

소단원(1)은 읽기, 쓰기를 융합하여 구성하였고, 소단원(2)는 읽기를, 소단원(3)은 쓰기를 다루어 융합 후 나열 방식으로 단원이 구성되었다. 융합 후 나열할 경우는 나열 후 융합과 유사한 장점을 가질 수 있다. 먼저 통합 학습을 하고 이 내용을 바탕으로 교육과정의 학습 내용을 상세하게 다룰 수 있어 교육 과정의 내용을 충실히 반영할 수 있는 구성 방식이다.

3. 영역 통합 단위 구성에서의 유의점

7학년 23종 국어교과서에서 읽기 영역은 다른 영역과 통합하여 단원을 구성하는 방식이 대부분이었다. 이렇게 영역을 통합하여 단위 구성을 할 경우 대단원 내에 둘 이상의 영역이 함께 다루어지므로 학습목표가 불분명해질 수 있다. 융합되는 방식과 단순히 나열되는 방식 등으로 다양하게 영역이 통합되었기 때문에 학습목표를 대단원 수준에서만 제시하는 것보다 더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 특히 나열 방식으로 통합한 경우는 각 소단원은 별개의 영역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소단원 수준의 학습목표가 제시되어야 교사와 학생이 그 단원의 학습목표를 분명하게 인식할 수 있게 된다.

천재(노)는 1학기 2단원에서 읽기와 문법 영역을 통합하였는데 소단원의 학습목표는 각각 다음과 같다.

교과서	소단원명	학습목표	영역
1학기 국어 2단원	(1) 읽기란 무엇인가	• 읽기의 원리를 알고 능동적으로 글을 읽을 수 있다.	읽기
	(2) 같은 글, 다르게 읽기	• 읽는이에 따라 글의 내용이 다르게 이해될 수 있음을 안다.	읽기
	(3) 품사	• 품사의 분류 기준, 갈래, 특성을 안다.	문법

대단원은 읽기와 문법의 통합 단원이지만 소단원 수준에서 별개의 영역을 다루고 있는 나열 방식으로 통합하였기 때문에 소단원 학습목표가 제시되어야 교과서 사용자들이 단원의 학습목표를 알고 교과서를 사용할 수 있다. 따라서 통합을 하여 단원 구성을 할 때는 소단원 수준의 학습 목표가 제시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비상(조)의 경우는 대단원 학습목표와 소단원 학습목표를 함께 제시하고 있다. 영역을 통합한 읽기 영역은 읽기(1)과 문법(5)인데 1학기 국어 1단원의 대단원 학습목표는 ‘읽기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다양한 읽기 방법을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글을 읽는다.’이다. 이 대단원 학습목표만 제시하였다면 각 소단원의 영역과 학습목표를 알기 어렵다. 1단원의 각 소단원 학습목표를 통해 교과서 사용자는 단원의 학습 내용을 분명하게 알 수 있게 된다.

교과서	소단원명	학습목표	영역
1학기 국어 1단원	(1) 나의 소중한 책	• 자신의 읽기 경험을 떠올리며 적극적으로 글을 읽는 태도의 중요성을 안다.	읽기
	(2) 책도령을 구해 주세요	• 읽기의 특성을 알고, 글의 종류에 따른 다양한 읽기 방법을 이해한다. • 지시어의 쓰임을 이해하며 글을 읽는다.	읽기 문법
	(3) 적극적으로 읽기	• 메모의 효과와 방법을 알고, 메모를 하며 적극적으로 글을 읽는다.	읽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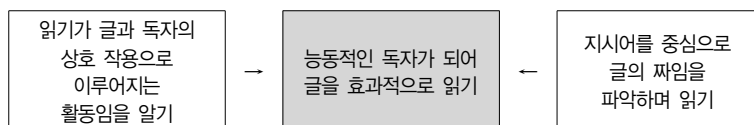
교수-학습의 주체인 교사와 학생이 단원의 목표를 분명하게 인식하는 것은 교수-학습의 첫단계이다. 대단원 수준에서는 통합을 하였으나

소단원 수준에서는 별개 영역을 다루는 나열 방식의 경우는 대단원의 학습 목표와 소단원의 학습 목표가 일치하지 않으므로 소단원에 구체적인 학습 목표를 제시하여 수업의 목표가 분명하게 나타나도록 해야 한다. 학습목표의 상세 제시는 목표를 분명하게 하는 장점과 학습량이 과다해질 수 있다는 단점이 나타날 수 있어 이에 대한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교과서 집필진들이 유의해야 한다.

통합 단원의 학습목표 제시가 대단원 수준에서 이루어지거나 소단원 수준에서 제시되는 방식이 일반적이었는데, 이와 달리 두 영역을 통합하며 상위의 학습목표를 새롭게 제시하는 방식도 있었다. 통합 단원을 구성하면서 새로운 상위 개념의 학습목표를 제시하는 경우인 디딤(이)의 경우를 살펴보겠다.

교과서	단원명	영역	학습목표
1학기 국어	2단원 읽기가 힘이다	읽기 문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읽기의 특성과 방법을 알고 이를 바탕으로 글을 읽는다. • 목적과 관점에 따라 능동적으로 글을 읽는다. • 지시어의 의미와 글의 짜임을 생각하며 글을 읽는다.

국어 교과서 45쪽에 학습 내용을 안내하면서 읽기 영역의 학습내용을 ‘읽기가 글과 독자의 상호 작용으로 이루어지는 활동임을 알기’, 문법 영역을 학습 내용을 ‘지시어를 중심으로 글의 짜임을 파악하며 읽기’라고 제시하고 이 두 가지를 통해 새로운 학습 목표인 ‘능동적인 독자가 되어 글을 효과적으로 읽기’를 제시하고 있다.



새로운 상위 학습목표는 통합한 내용의 연결을 긴밀하게 하는 기능을 할 수 있지만 통합을 하면서 상위 수준의 학습 목표를 제시하게 되면 학

습 목표가 불분명해 지는 단점이 생길 수 있다.

통합 단원을 구성할 때는 교과서 개발 과정에서 나타나는 교육과정의 변형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다양한 이유로 교육과정의 변형이 나타날 수 있지만, 통합 단원을 구성하기 위한 목적의 변형도 나타났다. 교과서가 교육과정을 충실히 반영해야 한다는 측면에서는 통합 단원의 구성이 교과서 본래의 목적에 소홀하게 될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교육과정의 변형으로 교육과정의 내용에 추가가 되어 단원이 구성된 경우가 있었다. ‘추가’는 교육과정에서 제시한 학습 요소에 새로운 요소를 첨가하여 교과서 단위 학습 목표와 내용을 구성하는 방식이다(정혜승, 2002). 이런 경우 교육과정의 내용에 변형이 생기고 학습 요소가 증가하게 된다.

추가가 여러 교과서에서 동일한 방식으로 나타난 단원은 성취기준 읽기(5)를 교과서에 반영한 단원이었다. 읽기(5) ‘영화에 등장하는 인물의 가치관이나 사고방식을 비판적으로 이해한다’라는 성취기준을 학습목표로 제시하며 ‘토론하기’을 추가한 교과서가 5종이 있었다. 이 교과서들의 경우 다음과 같이 학습목표를 제시하였다.

교과서	읽기(5) 성취기준 관련 단원의 학습목표
교학(김)	〈2학기 국어 교과서〉 6. 영화 속 이야기와 인물 • 영화의 서사 구조를 파악할 수 있다. • 영화를 보고 인물의 성격과 형상화 방식을 알 수 있다. • 영화 속 인물의 가치관이나 사고방식에 대해 토론할 수 있다.
대교(박)	〈2학기 생활국어 교과서〉 4. 영화가 나에게, 내가 너에게 • 영화 속 인물의 생각이나 태도에 대하여 토론할 수 있다. • 대상의 특성을 살려 인상 깊게 소개할 수 있다.
대교(왕)	〈1학기 생활국어 교과서〉 5. 작품 속 인물을 찾아서 • 소설 속 인물의 갈등과 심리 상태의 변화 과정을 이해하며 작품을 읽는다. • 영화에 등장하는 인물의 가치관이나 사고방식에 대해 토론한다.
박영(송)	〈2학기 국어 교과서〉 6. 즐거운 영화 읽기 • 영화의 매체 특성을 이해한다. • 영화에 나타난 인물의 성격과 인물 형상화 방식을 이해한다. • 영화에 등장하는 인물의 가치관이나 사고방식에 대해 토론한다.

교과서	읽기(5) 성취기준 관련 단원의 학습목표
창비(김)	〈2학기 국어 교과서〉 5. 소설과 영화는 이웃사촌 소단원(2) 식객 •영화의 매체 특성을 이해할 수 있다. •영화에 나타난 인물의 가치관이나 사고방식에 대해 토론할 수 있다.

위의 5종 교과서는 읽기(5) 성취기준에 추가하여 학습 목표에 토론을 하도록 변형했는데 ‘이해한다’와 ‘토론한다’는 학생의 성취 목표에 차이가 있게 된다. ‘토론할 수 있다’를 학습목표로 제시하는 것과 비판적으로 이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토론이라는 방법을 활용한 것은 목표와 방법이라는 차원에서 차이가 있다. 영역 통합 단원을 구성하며 학습목표 제시 수준에서 변형을 하는 것은 학습 요소의 증가 또는 감소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유의하는 것이 필요하다.

IV. 결론

앞에서 23종 7학년 국어 교과서를 대상으로 읽기 영역에서 영역 통합 단원의 구성 양상과 방식을 살펴보았다. 영역 통합 단원이 읽기 성취기준 별로 16회에서 27회까지 나타나 대부분의 읽기 단원이 영역 통합 단원으로 구성되었다. 읽기와 밀접하게 통합한 영역은 쓰기였고, 말하기, 문법 영역과 통합한 단원의 사례수도 높게 나타났다. 대단원의 통합 방식은 나열 방식, 융합 방식, 나열 후 융합 방식, 융합 후 나열 방식으로 다양하게 나타났다.

대단원 구성에서 영역을 통합하였으나 소단원과 활동 수준에서는 통합되지 않고 나열 방식으로 구성된 경우는 대단원의 학습목표와 소단원의 학습목표가 일치하지 않으므로 소단원 학습 목표가 제시되어야 교사와 학습자가 각 소단원의 학습 목표를 분명하게 인식할 수 있다. 영역을 통합하여 단원을 구성하면서 교육과정의 내용에 변형이 일어나는 양상이 있었

다. 영역의 통합으로 효율적인 교수·학습이 운용되기 위해서는 통합의 방식에 대한 구체안이 교육과정 수준에서 안내되는 것이 필요하겠다(김정우, 2009).

후속 연구로 각 영역 간의 전체적인 통합 양상에 대한 분석을 통해 교과서의 내용이 영역 간의 균형을 이루고 있는지 확인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교과서가 실제 사용되는 교실 현장을 대상으로 하여 통합 단원의 교육적 효용에 대한 실제적인 연구가 후속 연구로 이루어져할 필요성이 있다.*

* 본 논문은 2010. 10. 30. 투고되었으며, 2010. 11. 5. 심사가 시작되어 2010. 11. 29. 심사가 종료되었음.

■ 참고문헌

- 교육인적자원부(2007), 『국어과 교육과정』(교육인적자원부고시 제2007-79호).
- 교육인적자원부(2008), 『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2007-79호에 따른 중학교 교육과정해설(Ⅱ)』.
- 고춘화(2008), “사고력 함양을 위한 읽기·쓰기의 통합적 접근 모색—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국어교육학연구』 제31집, 211~240, 국어교육학회.
- 김봉순(2004), “독서와 작문 통합 지도의 전망 : 비문학 담화를 중심으로”, 『독서연구』 제11호, 83~112, 한국독서학회.
- 김정우(2009), “‘국어’ 교과서의 영역 통합 양상 분석 : 문학 영역을 중심으로”, 『독서연구』 제22호, 215~244, 한국독서학회.
- 김정자(2008), “읽기와 쓰기 통합 지도를 위한 국어과 교육과정과 교과서”, 『작문연구』 제6집, 251~280, 한국작문학회.
- 서 혁(2006), “새로운 국어 교과서 개발의 방향—쓰기 영역을 중심으로”, 『작문연구』 제3집, 103~137, 한국작문학회.
- 송현정(2005), “국어 교과서 검정제에 관한 실태 분석과 도입의 방향 탐색”, 『이중언어학』 제28호, 161~183, 이중언어학회.
- 양정호(2008), “텍스트 읽기와 쓰기 교육”, 『텍스트 언어학』 제24호, 101~127, 한국텍스트언어학회.
- 유성호(2005), “국어과 교육과정에서의 국어과 교과서에 대한 비판적 검토”, 『청람어문교육』 제31집, 75~100, 청람어문교육학회.
- 정혜승(2002), “국어과 교육과정이 교과서에 반영되는 방식에 관한 연구”, 『한국어학』 제15집, 229~258, 한국어학회.

<초록>

국어 교과서의 통합 단원 구성 방식 연구

—중학교 1학년 김정 교과서 23종의 읽기 영역을 중심으로—

류보라

이 연구는 국어 교과서의 단원 구성에서 영역 통합이 이루어지는 방식을 알아 보기 위해 23종의 중학교 1학년 김정 국어 교과서를 대상으로 읽기 영역의 통합 양상을 분석하였다. 23종의 김정 국어 교과서의 읽기 단원에서 영역 통합 단원이 읽기 성취기준별로 16회에서 27회까지 나타나 대부분의 읽기 단원이 영역 통합 단원으로 구성되었다. 읽기와 밀접하게 통합한 영역은 쓰기였고, 말하기, 문법 영역과 통합한 단원의 사례수도 높게 나타났다.

대단원의 통합 방식은 나열 방식, 융합 방식, 나열 후 융합 방식, 융합 후 나열 방식으로 다양하게 나타났다. 나열 방식은 대단원에서 통합한 영역들을 소단원 수준에서 별도 단원으로 구성하는 방식이며, 융합 방식은 대단원에서 통합한 영역들의 교육내용을 융합하여 소단원 수준에서 통합 영역들을 다루고 있는 방식이다.

대단원 구성에서 영역을 통합하였으나 소단원과 활동 수준에서는 통합되지 않고 나열 방식으로 구성된 경우는 대단원의 학습목표와 소단원의 학습목표가 일치하지 않으므로 소단원 학습 목표가 제시되어야 교사와 학습자가 각 소단원의 학습 목표를 분명하게 인식할 수 있다. 영역을 통합하여 단원을 구성하면서 교육과정의 내용에 변형이 일어나는 양상이 있으므로 효율적인 교수·학습이 운용되기 위해서는 통합의 방식에 대한 구체안이 교육과정 수준에서 안내되는 것이 필요하다.

【핵심어】 국어 교과서, 국어과 교육과정, 통합, 단원의 구성, 읽기 영역

<Abstract>

A Study on the Unit Construction of the Domain Integration
in Korean Textbooks

—focused on the reading domain of 23 authorized textbooks
for the first grade in the middle school—

Ryu, Bo-ra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ways of unit construction in Korean textbook. This study analyzed how the reading domain is integrated with other domains in 23 authorized textbooks for the first grade in the middle school.

Most reading units are proved as domain integration units. The achievement standards of reading domain are integrated with other domains 16 to 27 times in the reading units in the 23 authorized textbooks. Writing domain is the most frequently integrated with reading domain. Speaking and grammar are the next.

The way of integration of main units is arrangement, combination, combination after arrangement and arrangement after combination. The arrangement is that domains are integrated in the main units and each content of domain consists the small units. The combination is that domains are integrated in the small units.

In the arrangement, the small unit's objective should be presented so that teachers and students can recognize it clearly because the main unit's objective does not match the small unit's one. The introduction of the way of integration is necessary in the curriculum level for the efficiency of teaching and learning in the lesson since the change in the content of the curriculum happens in the domain integration.

【Key words】 Korean textbook, Korean language curriculum, integration, unit construction, reading domain